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2주년 및 서거 77주기 추모식

추 모 사

2022. 5. 6.(금) 14:30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32주년과 서거 77주기를 맞이하여

선생께서 남기신 업적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그 뜻을 받들고자
이곳 서울현충원에 모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송진우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삼가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고하 송진우 선생 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조국의 독립과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그 고귀한 삶을 나라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교육자로서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를 엿보자’ 는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실력양성론을 전파하셨으며,

언론인으로서

일제 치하에서 국민계몽과 인재육성에
노력을 경주하시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민족대표 48인으로서

3.1운동을 계획하신 혐의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3·1운동 후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자,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선생님은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며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습니다.

광복 후에는 자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선진사상과 경륜을 펼치시며
부강한 조국을 일으키고자 진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확고한 신념으로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에 매진하시어
애국혼의 표상으로 우뚝 서 계십니다.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고하 선생님!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자존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해
비분강개하던 아시아의 작은 국가는,
이제 세계 주요 회의를 주재하고 국제기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가 되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선생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조국과 민족을 향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만을 생각했던 고하 선생님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는 한,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떠한 위기와 도전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고하 송진우 선생님께
무한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6.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용 교 순